



정치 > 통일

[단독] 6·15선언 20주년 행사 '평화산책'...코로나19로 사실상 무산

통일부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할 것"

남북 공동행사 무산에 이어 대면 행사도 줄줄이 취소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0-06-05 07:00 송고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장면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2018.4.26/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남북 접경지역을 산책할 수 있도록 기획한 '평화산책' 행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사실상 무산됐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로 오는 14일 예정된 평화산책 행사가 잠정 취소됐으며,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된다.

정부는 평화산책 행사를 참여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서울역 등에서 집결한 후 평화열차를 타고 행사장소인 임진강역까지 이동하고, 이들이 함께 남북출입사무소까지 걷는 형태로 기획했다. 다수가 밀집할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행사의 잠정 취소가 결정된 것이다.

행사 계획이 발표된 지난 5월 29일까지만해도 통일부는 당국자는 '코로나19를 감안해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냐'라는 질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규모를 축소하는 등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당초 '취소'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에 이어 학원이나 종교시설을 통해 최근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자 수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다.

이외 오프라인 행사이자 시민 참여 행사로 오는 15일 저녁 예정된 '시민과 함께하는 6·15 기념식'은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됐다.

정부는 올해 초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또한 코로나19와 한반도 정세 등이 고려돼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 남측 단독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비대면 행사인 '평화 챌린지' 온라인 이벤트, 일부 TV 프로그램 방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편 6·15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3~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됐으며,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